[UCI]I804:24011-200000236330

2008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집단미술치료가 부모의 부재로 인한 문제행동을 해소하는데 미치는 효과

- 한 부모 가정의 아동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술심리치료전공
문 석 인

집단미술치료가 부모의 부재로 인한 문제행동을 해소하는데 미치는 효과

- 한 부모 가정의 아동을 중심으로 -

An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Release of Problematic Behaviors Due to Absence of Parents
- Centering on Children of One-parent families -

2008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술심리치료전공
문 석 인

집단미술치료가 부모의 부재로 인한 문제행동을 해소하는데 미치는 효과

- 한 부모 가정의 아동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윤 갑 근

이 논문을 디자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2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술심리치료전공

문 석 인

문석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8년 2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목 차

목 차 ····· Ⅰ
표 목 차 ····· Ⅲ
그 림 목 차 ····· Ⅳ
Abstract ····· Ⅴ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 1
1-2. 연구의 범위 및 목적 ····· 4

제2장. 아동심리의 이론적 고찰
2-1. 용어정의 및 가정의 개념 ····· 6
2-1-1 용어정의 ····· 6
2-1-2 가정의 개념 및 현황 ····· 8
2-2. 가정의 유형 및 특징 ····· 14
2-2-1 정상가정의 유형 ····· 14
2-2-2 한 부모 가정의 유형 및 특징 ····· 14
2-3. 아동의 자아개념 ····· 16

제3장.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 18
3-1-1 연구기간 및 장소 ····· 18
3-1-2 연구대상특성 ····· 19
3-1-3 연구실시방법 ····· 20
3-2. 측정도구 ····· 20
3-2-1 자아개념 검사 ····· 21

3-2-2 집, 나무, 사람 검사(HTP) ····· 21
3-2-3 동적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 KFD) ····· 22
3-3.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 23

제4장. 연구결과
4-1. 자아개념 검사를 통한 변화 ····· 24
4-2. 그림검사에 의한 변화 ····· 25
4-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변화 ····· 31
4-3-1 A아동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진행 ····· 31
4-3-2 B아동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진행 ····· 38
4-3-3 C아동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진행 ····· 44
4-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문제행동 변화 ····· 49

제5장. 결론 및 제언
5-1. 결론 ····· 51
5-2. 제언 ····· 53

참고문헌 ····· 54

부록 ····· 57

[표 목 차]

<표 1> 1994년∼2000년 이혼률 ····· 3
<표 2> 1994년∼2000년 청소년 범죄율 ····· 3
<표 3> 한 부모 가구 비율 ····· 11
<표 4>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 ····· 11
<표 5> 한 부모 가정의 변화 ····· 12
<표 6> 한 부모의 동거 자녀 ····· 13
<표 7> 연구대상 아동들의 특징 ····· 20
<표 8> 자아개념의 하위척도 구성 ····· 21
<표 9>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 23
<표 10> 아동의 자아개념 사전·사후 검사결과 ····· 25
<표 11> A아동의 HTP사전·사후 검사결과 ····· 26
<표 12> B아동의 HTP사전·사후 검사결과 ····· 27
<표 13> C아동의 HTP사전·사후 검사결과 ····· 28
<표 14> A아동의 KFD사전·사후 검사결과 ····· 29
<표 15> B아동의 KFD사전·사후 검사결과 ····· 29
<표 16> C아동의 KFD사전·사후 검사결과 ····· 30
<표 17> A아동의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회기별 문제행동변화 ··· 49
<표 18> B아동의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회기별 문제행동변화 ··· 50
<표 19> C아동의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회기별 문제행동변화 ··· 50

[그림 목차]

<그림 1> A아동 나를 소개 ····· 31
<그림 2> A아동 나의 이름 ····· 32
<그림 3> A아동 나의 장점 ····· 32
<그림 4> A아동 나의 두 얼굴 ····· 34
<그림 5> A아동 신문지 찢기 ····· 34
<그림 6> A아동 찰흙으로 만들기 ····· 35
<그림 7> A아동 미래의 나의 모습 ····· 37
<그림 8> B아동 나를 소개 ····· 38
<그림 9> B아동 나의 장점 ····· 39
<그림 10> B아동 나의 두얼굴 ····· 40
<그림 11> B아동 신문지 찢기 ····· 40
<그림 12> B아동 찰흙으로 만들기 ····· 41
<그림 13> B아동 전신화 ····· 42
<그림 14> B아동 휴지통 만들기 ····· 42
<그림 15> B아동 받고 싶은 상장 만들기 ····· 43
<그림 16> C아동 나의 이름 ····· 45
<그림 17> C아동 나의 두 얼굴 ····· 46
<그림 18> C아동 신문지 찢기 ····· 46
<그림 19> C아동 찰흙으로 만들기 ····· 47
<그림 20> C아동 미래의 나의 모습 ····· 48

Abstract

An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Release of Problematic Behaviors Due to Absence of Parents

- Centering on Children of One-parent families -

Moon Seok-In
Advisor : Yoon Gab-Geun
Majoring in Psychological Art Therapy
Department of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to identify what effect a group art therapy has on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problematic behaviors of children from one parent′ families, and its effect on release of their problematic behavio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targets three children from one-parent families who are nursed in local nursing centers in G city and whose self-esteem is very low and whose behaviors are problematic due to their parents′ absence. To improve problematic behaviors and low self-esteem the subjects have, the group art therapy is provided at local nursing centers from April 19, 2007 to October 11, 2007 once a week and each session requires about 50 minutes.

This study uses the Self Esteem Inventory(SEI) developed by Coopersmith(1967), and the test tool translated and validated by Shin Cheel (1997) referring the studies by DHK Pope and Craighead et. al.

(1988). The art therapy program started to use pictures to understand people in the late 19th century. Goodenough(1926) studie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ortraits which was a normative model from childhood to adolescents and used the house-tree-person test(HTP) and the dynamic family picture (KFD) which defines the developmental relations between pictures and intelligence.

The study obtain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when the activities and evaluation observed from the art therapy programs are analysed, it is suggested that the group art therapy has a positive effect on improvement of children's self-concept. In previous studies by Kang Gyeong-Rae(2005), it was reported that the group art therapy has a positive effect on all the subjects in the four sub-variables such as physical, academic, emotional and total self-concep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gram is effective in that it is developed according to the converged opinions of the subjects and attempts to improve their low self-concepts in multiple viewpoints.

Second, it is demonstrated that the group art therapy centering on the subjects is effective in decrease of their problematic behaviors.

Third, the group art therapy for the subjects shows a systemic change in the generative analysis, but there is difference in the degree of the change. In the sessional analysis of pictures, the HTP and the KFD, subject A and B show significant change while subject C shows insignificant change. And it has a positive effect on decreased problematic behaviors of subjects A and B.

Personally, A subject shows no abnormality in his portrait and obtains stability and simplification through the therapy. Above all, as he has a confidence in facing with external world, his composition is stable and his brushing grows more powerful. Less naming, disturbing other students and leaving from the eat are found.

B Subject has decreased inferiority in contacting with others, is satisfied with his pictures, and reproduces objects more realistically with stable composition. As he recovers emotional stability and his identity, he shows less problematic behaviors such as tapping the desk.

C Subject has positive feeling in contacting others and a desire to meet others, is satisfied with his pictures, presents his pictures more realistically, has confidence in himself, and recovers his identity, but the difference is in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on decreased problematic behaviors and improved self-concept.

Through this program, the subjects show less problematic behaviors and improved self-concept by recognizing and expressing their feeling for themselves, positive feeling toward contact with external world and others and decreased offensive behavior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group art therapy has a positive effect on change of problematic behaviors of the subjects.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범위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조건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가정이다.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생활을 배우는 인생의 출발점이며 처음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장이다. 인간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양육되어 인격의 틀을 갖추게 되며 생활양식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적응해 간다[1]. 따라서 남녀가 결혼을 하여 가족을 이루고 자녀의 탄생을 시작으로 양육을 하면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가족을 통해서 자녀들은 사회생활을 학습하게 되며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언어, 전통, 가치관, 풍습, 종교 등 사회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즉 가정이란 사회생활의 기초이고 인간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2]. 가정은 한 개인이나 가족이 정신적, 물질적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보금자리이다. 따라서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족 구성원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이룩하며 또한 여러 사회집단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인 가정의 파괴가 심각 해 지고 있다. 현대인의 행복에 대한 욕구와 배우자에 대한 독점적 기대가 부부 및 가족 간 갈등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의 붕괴나 결손이 일어난다면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1) 전은표,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가정 아동의 우울, 자아개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05), p. 1.
2) 김미영, <결손가정 학생과 정상가정 학생간의 합리적 신념의 차이>, (1989), p. 1.

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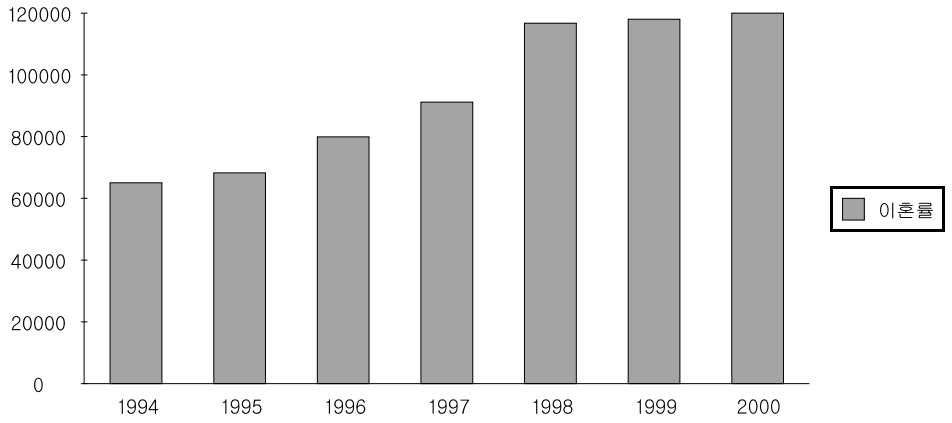
인간들은 가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고 또 적응하며 정신적 신체적 성장이 되었을 때 사회의 한 일원으로 나오게 된다. 또 가정은 인간이 탄생하여 경험하는 제 1차적 사회 환경이고 동시에 성장한 후에도 그 생활의 기본으로 기능하는 사회구성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가정이 맡고 있는 여러 기능 중 교육적 기능, 보호적 기능이 인간의 성장과 완성에 가장 필요한 요소임을 더 말할 나위할 게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능의 올바른 수행 여부와 인간들의 범죄와는 밀접한 관계가 반드시 있으리라 보는 것이 그리 크게 틀린 시각은 아니라 생각된다. 부모가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사망,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의 부모를 잃게 된다면 이를 결손가정이라 하고 이러한 가정환경이 청소년 범죄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모든 결손가정들이 범죄의 일원을 배출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사람 즉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현을 받고 형기가 3년 이상인 자'에 부과 대상 범죄로는 절도, 사기 폭력을 비롯해 강간 강도, 상해, 약취 살인 등이 폭 넓게 망라되어 있는 이 피 감호자들의 대다수가 학력이 낮은 빈곤계층 결손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무학이 21.9% 인 것을 비롯해 초 졸이 40.3%, 중졸이 25.4%에 달했다. 이에 반해 대졸은 0.4%에 불과했다. 이들의 가정형편이 사회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피 감호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 아동학대를 받는 경험이 있거나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경우를 많이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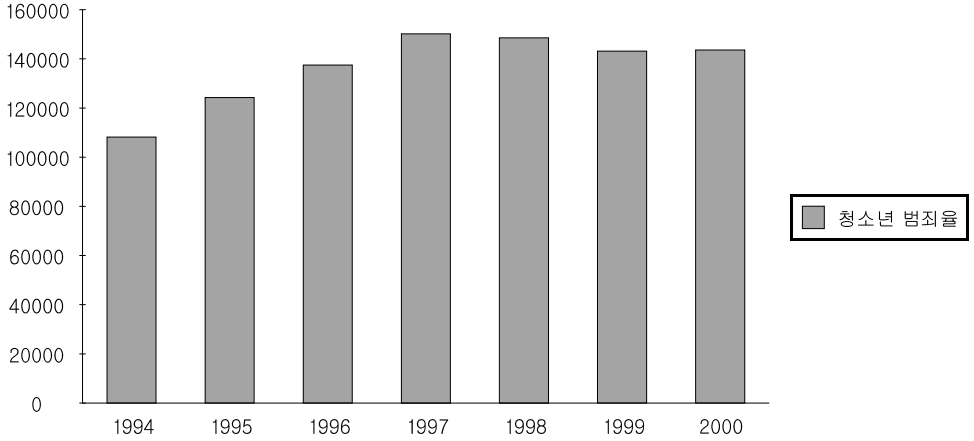
가정 환경적 요인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근거 두 번째는 199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은 급상승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는 더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1994년~2000년 이혼률 / 2006통계청



위 통계와 같이 부부 및 가족간의 갈등과 이혼문제는 여성 우울증과 가정해체를 넘어 청소년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을 저해한다. 이는 현대 사회가 낳은 우리사회의 또 하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혼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과 동일하게 청소년 범죄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율이 최고치에 달했을 기점을 전후로 청소년 범죄건수도 또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표 1>,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1994년~2000년 청소년 범죄율/2006통계청



<표 1>, <표 2>에서와 같이 가정의 붕괴나 결손은 청소년들의 일탈과 더불어 범죄율의 증가를 수반할 가능성을 가진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위 연구자는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한 부모 가족 아동들의 성장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대한 해소와 자아 개념을 찾게 해주고 자기모습을 인식하게 하여 사회의 한 일원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집단 미술치료”는 취학 아동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으로서 보다 나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며 보호자가 없는 가정일 경우 아동을 육성, 지도하는 기능을 가지며, 또한 혼자서 또는 아이들끼리만 시간을 보냄으로써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어른의 감독아래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며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1-2. 연구의 범위 및 목적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족구성원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이룩하며 또한 여러 사회집단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가정은 인간이 탄생하여 경험하는 제 1차적 사회 환경이고 동시에 성장한 후에도 그 생활의 기본으로 기능하는 사회구성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가정이 맡고 있는 여러 기능 중 교육적 기능, 보호적 기능이 인간의 성장과 완성에 가장 필요한 요소임을 더 말할 나위할 게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하게 가정이 인간에게 필요한 요소이며, 부모는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사망,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의 부모를 잃게 된다면 이를 결손가정이라 하고 이러한 가정환경이 청소년 범죄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중 편모 아동들을 중심으로 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 가정 아동들의 자아 존중감 변화와 부모의 부재로 인한 문제행동의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 가정 아동들의 자아 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둘째, 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 가정 아동들의 문제행동 해소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또한 부모 가정 아동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 할 수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매우 유연한 시기이기에 있는 한 부모 가족 아동에게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2장. 아동심리의 이론적 고찰

2-1. 용어정의 및 가정의 개념
2-1-1 용어정리
2-1-2 가정의 개념 및 현황
2-2. 가정의 유형 및 특징
2-2-1 정상가정의 유형
2-2-2 한 부모 가정의 유형 및 특징
2-3. 아동의 자아개념

2-1. 용어정의 및 가정의 개념

2-1-1 용어정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 부모 가정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遺棄),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3]. 한 부모 가정은 한쪽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복합적인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복지의 일차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정의를 보자면 부모의 한쪽과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한 부모와 그 부모의 보호를 요하는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지칭함으로써,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를 보호하고 있지 않는 부모는 혼

3) 김영아, <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 가정 청소년의 우울, 불안에 미치는 효과>, (2006), p. 4.

자 사는 것으로 보아 가족이나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부모 가정 아동 유형 중 부모의 부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행동을 경험해 지역아동센타에 일시 교육중인 아동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 존중감은 개인의 자기체계, 성격 및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심리적 개념으로서, 여러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4]. 자아존중감에는 '평가'와 '존중'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으며, 존중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생길 수 있는 개념이다. 즉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자신의 가치 평가를 말 하는 것이다[5]. 자아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아에 대한 개념부터 생겨야 한다. 이런 단계적인 절차에 의한 개념이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기도 하고, 다른 용어로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 판단, 태도, 감정, 행복 및 기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한 인간의 발달적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 정신건강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3) 문제행동

문제 행동은 에델브록(Edelbrock)등이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 향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 : CBCL)에서 말하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 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을 문제행동이라 한다[6]. 본 연구에서 말하는 문제 행동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 수업시간 중 친구에게 말을 걸어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 수업시간에 부적절한 단어를 쓰는 행동, 수업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행동

4) 최옥희, <집단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문제행동과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2004), P.11
5) 박수현, <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 가족의 모-자 자아존중감 및 관계지각에 미치는 효과>, (2004), p. 4
6) 강경래, <꼴라쥬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개념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2005), p. 5.

을 말한다[7].

(4) 불안

불안장애(Anxiety Disorder)란 불안(anxiety)이라는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불쾌한 정서가 명백히 존재하는 일련의 정신장애를 말한다. 불안이란 광범위하게 매우 불쾌한 막연한 불안한 느낌으로 관련된 신체 증상과 행동 증상이 동반된다. 불안이란 신체가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양상으로 위험이나 고총이 예견될 때 도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불안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은 안절부절못하고 짜증을 잘 내며 예민하다. 또 닥치지도 않을 위험을 걱정하고 최악의 사태만을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불안이 주된 양상이거나 또는 두려운 대상이나 상황에 직면하여 불안을 경험하거나 또는 강박사고, 강박행동에 저항할 때 불안을 경험하는 장애이다. 정신불열증이나 기분장애와 같은 장애에서 연유하는 불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심박동 증가, 소화불량, 설사, 변비, 발한, 근육긴장으로 인한 두통, 불면증 등이 나타난다. 정상가정의 청소년과 결손가정의 청소년을 비교한 결과 불안이 결손가정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안을 비합리적 신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8]. 즉 부모와의 동일시와 모방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데 부모의 이혼이나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 관계의 결핍을 가져온다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자포자기의 특성을 지니기 쉬운 비정상적인 성격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2-1-2 가정의 개념 및 현황

(1) 가정의 개념

사전적인 의미로는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공동생활체. 즉 부부, 자

7) 고진옥,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ADHD 특성을 지닌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2004), p. 4.
8) 이효신, <미술치료가 불안・위축행동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2003), p. 5.

식, 부모 등 가족이 공동 생활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또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한 개인의 삶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환경이다[9]. 집(house:haus)을 비교해 보면, 전자가 인간이 만들어 낸 하나의 조직체, 즉 인간관계를 가리키는 데 대해서 후자는 구체적인 건조물을 가리키고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같지 않다. 또, 집이라는 말은 가장(家長)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제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영어는 패밀리(family)이다. 그것도 낡은 의미의 패밀리이며, 현재와 같은 의미의 가정이라는 조직체와는 그 구성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말의 개념을 밝힐 때는 부부라는 말을 먼저 쓰고, 가족이라는 말을 종속적으로 쓴다. 패밀리는 가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가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가족은 구성원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반면, 가정은 구성원인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의미한다.(보통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사는 장소를 의미함) 그러므로 엄밀하게 가족과 가정은 중점이 무엇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족관계, 가족공동체의 구성, 운영방법 등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조달방법이나 생산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그 형태를 달리하여 왔는데, 부부라는 남녀가 모여서 상부상조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하는 조직체인 '가정'이 완성되는 것은 오히려 지금부터의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 되는 것이다.

또한 가정의 기능으로는 교육의 기능, 휴식의 기능, 오락의 기능, 경제적 기능, 종교적 기능, 양육의 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다.[10]

(2) 한 부모 가정

① 한 부모 가정의 개념

모 부자 복지법 제4조(정의)에서는 한 부모 가정을 칭하는 모 부자 가정을 정의함에 있어 '모' 또는 '부' 라 함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

9) 김영아, <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 가정 청소년의 우울, 불안에 미치는 효과>, (2006), p. 1.
10) 류승의,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 특성의 비교>, (2000), p. 5.

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관계는 제외)로 모 또는 부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다만, 취학 시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으로 보고 있다. 예전에 한 부모 가정은 편부모가족, 편부모가정, 편부모가구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혼용되어 불리어지다가 편부모의 편(偏)이 결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등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온전한 하나의 가정이란 의미로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한 부모 가정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11].

한 부모 가정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 이혼, 미혼모, 별거 등으로 인해 한 부, 한 모로 이루어진 가구로 18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자녀의 집단을 의미한다[12].

이러한 정의들은 한 부모 가정을 모두 한 부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한 부모 가정으로 정의하지만 이와는 달리 한 부모 가정을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모든 가정을 한 부모 가정으로 보고 있다. 한 부모 가정의 어려움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부모 가정의 범위를 넓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② 한 부모 가정의 현황

한 부모 가정은 현대에 들어 이혼, 사망, 별거, 유기, 그리고 미혼모 등의 발생 증가로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3]. 현대사회의 한 부모 가정의 증가는 산업화 이후 고도로 발전된 경제성장과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이혼의 증가, 개정된 가족법의 영향, 복잡한 사회 환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높은 스트레스, 각종 성인병, 과로사 등 40대 남성의 사망률 증가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 현상에 그치기보다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여성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역할이 활성

11) 고정자, <한 부모 가정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제 29집 (2004), p. 280.
12) 박수현, <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 가족의 모-자 자아존중감 및 관계지각에 미치는 효과>, (2004), p. 4.
13) 박수현, <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 가족의 모-자 자아존중감 및 관계지각에 미치는 효과>, (2004), p. 6.

화,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규범과 가치관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로써 우리사회에서 상당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14].

<표 3> 한 부모 가구 비율

(단위: 천 가구. %)

연도	총가구수	한 부모가구 수					한 부모 가구비율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	
1995	12.958	216 (22.5)	526 (54.8)	124 (12.9)	94 (9.8)	960 (100)	8.6
2000	14,312	252 (22.5)	502 (44.7)	245 (21.9)	122 (10.9)	1.124 (100)	9.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1)/ 한 부모 가정 지원단체 네트워크 리플렛

이혼의 증가와 함께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도 매년 증가해 2003년 전체 이혼 건수 167.1천건 중 114.3천 건인 68.4%가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한 부부들의 자녀수는 2명이 58.4천건(34.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명 47.8천건(28.6%)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표 4>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

(단위: %)

	1994	1995	1997	1999	2000	2002	2003	20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있음	70.6	71.4	71.6	71.2	70.4	69.7	68.4	65.5
1명	32.5	32.9	32.1	31.9	31.8	30.0	28.6	28.1
2명	32.5	32.9	34.4	34.9	34.2	35.0	34.9	32.7
3명	5.6	5.6	5.1	4.4	4.4	4.7	4.9	4.7
없음	29.4	28.6	28.4	28.8	29.6	30.3	31.6	34.5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2005)

14) 전은표, <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 가정아동의 우울, 자아개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05), p. 7.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00) 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한 부모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7.8%, 1995년 8.6% 2000년 9.4%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80%가 여성 한 부모 가정이며, 특히 30대와 40대에 높게 나타났다. 여성 한 부모가 된 원인은 이혼 43.7%, 배우자 사망 43.3%, 배우자 가출 및 유기 5.4%, 미혼모 4.7%, 기타2.9%의 순으로 나타나 이혼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가족 해체현상은 일시적인 사회현상에 그치기보다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 여성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역할이 활성화, 그리고 상당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15].

이러한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도 한 부모 가정이 계속해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하겠다. 따라서 이제는 한 부모 가정을 무조건 억제하려는 정책에서 벗어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에서 한 부모 가정을 어떻게 지원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한 부모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표 5> 한 부모 가정의 변화

가족형태	1990년	1995년	2000년
전국가구수 (단위:천가구)	11,355	12,958	14,312
한 부모+미혼자녀 (단위: %)	7.8	8.6 (편모:82.1, 편부 : 17.9)	9.4(편모:80.4,편부 : 19.6)

출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2001)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를 보면, 2002년에는 14만5000여 쌍이, 2003년에는 16만7000여 쌍이 이혼을 했다. 한 해 동안 이혼률이 15%나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혼률은 매해 증가해 왔으며,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한 사람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한 부모 가정의 증가로 이어진다.

15) 박충선, 정영숙 <양부모가족과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제 6집(1999), p. 220.

보건사회복지부 연구 결과를 보면 한 부모 가정의 부모는 경제적 활동과 가사 활동을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한 부모 가정의 부모는 아동에게 적합한 교육과 보호를 다하기에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있기 어렵다.

<표 6> 한 부모의 동거자녀

(단위: 명, %)

구 분	편 모	편 부	전 체
영 아	4.0	2.4	3.7
유 아	18.6	18.8	18.6
초등학생	43.7	44.2	13.8
중 고 생	56.6	51.9	55.4
만 19세 이상 미혼자녀	7.6	6.3	7.3

현재 탁아연령층의 방치어린이들을 위한 탁아시설은 늘어가지만 초등학교에 가기 직전이나 초등학교의 방치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그들도 위험에서 보호하고 바르게 양육하며,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올바른 사회적응훈련을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기는 방과 후에 노출되기 쉬운 각종 위험에의 인식 이외에도 초등학교 시기는 일생을 통해 보면 생활습관과 학습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습관의 형성과 함께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시기이다. 특히 정서의 발달은 인간 성장 발달의 원천이고, 정서적 경험은 아동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주며,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도 아동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기를 좋아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데 열중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아동기에는 보다 효과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2-2. 가정의 유형 및 특징

2-2-1 정상가정의 유형

우리 사회인식의 정상가정은 정상가족, 건강한 가정을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양부모 가정이다. 이런 가정의 종류로는 가족의 여러 형태로는 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인 핵가족과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따로 나가 살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인 대가족, 그 외에 자신의 가족 모두를 해외로 보내고 자신은 홀로남아 일을 하며 모은 돈을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기러기 아빠나 자녀들을 외국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아내와 자녀 또는 남편과 자녀는 외국에서 남편이나 아내는 국내에서 따로따로 생활하는 기러기 가족 등이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은 다섯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부부에게 생식경험을 제공한다. 둘째, 자녀를 출산 양육하여 인종존속에 기여한다. 셋째 부부가 성별, 관례에 맞게 그리고 부부와 자녀가 나이와 성별에 맞게 분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협동한다. 넷째, 마찰 없이 파업을 수행하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 될 수 있게 세대 사이에 분계선(근친상간 금기에 의해)을 긋는 것이다. 다섯째,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으로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골든버그(Goldenberg)는 이상적인 가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간과의 만남에서 아주 친화적인 태도를 보인다. 가족성원들이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견해와 타인의 견해에 기본적인 존중감을 갖추며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함께 일하려 하며 개인적인 자주성을 존중, 개성과 가족들간의 독립을 인정해 준다[16]. 정상가정은 자유롭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줄 알도록 학습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2-2-2 한 부모 가정의 유형 및 특징

한 부모 가정은 자녀를 누가 키우고 양육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16) 류승의,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 특성의 비교>, (2000), p. 5.

수 있다. 한 부모 가정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부모집단에 따른 분류로 한 부모 가정 발생 시 부모가 결혼, 또는 동거를 하였는지에 따른 분류, 둘째는 가족해체의 원인을 중심으로 배우자의 사망, 이혼, 장기입원, 장기 구속인지에 따른 분류, 셋째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누가 맡고 있는냐에 따른 것으로 모가 보호하면 모자가정, 부가 보호하면 부자가정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멘덴스(Mendens)는 한 부모 가정의 유형을 생활유형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첫째, 부모 중 한쪽이 자녀에 대한 의식주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 자녀의 사회화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단독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해 직업과 가사 책임의 이중부담을 지는 경우 둘째,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보조부모와 함께 부모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경우 셋째, 한 부모 가정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과 부모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경우로 엄마 같은 가정부, 한 부모의 친구나 애인이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넷째는 혈연관계나 법적인 친척관계에 있는 조부모, 삼촌, 형제 등이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다섯째는 부모가 약물, 도박, 정신적인 문제를 지닌 자로 부모역할을 유기한 경우 등이 있다. 한 부모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한 부모 가정 발생 이후 심리적, 경제적, 자녀양육, 자녀교육, 주거문제, 직업문제, 사회적 편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17].

한 부모 가정의 한 부모는 이혼, 사별 등으로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주로 분노감, 상실감, 배신감, 좌절감, 우울감, 열등감 등의 정서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인 혼란은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심각한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전문치료를 받아야할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한 부모의 혼란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혼가정 자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인관계, 이성관계, 결혼관계 등에서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18].

심리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에서 한 부모 가정 한 부모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사별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배우자의 상속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혼가정의 경우도 재산분할을 했다고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한 부모들은 경제

17) 황은숙, <한 부모 가정에 대한 반 편견 유아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조화>, (2002), p. 8.
18) 황은숙, 상기 책, p. 9.

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취업하려 하지만 한 부모라는 사실을 밝히면 취업이 되지 않고,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쫓겨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3. 아동의 자아존중감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사회구조가 가족구조 및 기능상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부모의 이혼, 사망, 별거 등으로 가족해체 현상이 증가하여 한 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한 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한 부모 가정 아동 중 이혼가정의 아동이 정상가정 아동보다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하며, 걱정, 분노, 우울, 열등감, 죄책감 등의 정서적인 갈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결손가정아동이 정상가정 아동에 비해 안정성이나 충동성에서 부정적 이었다고 보며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아동간의 성격특성의 차이를 보았는데, 결손가정 아동이 정상가정 아동보다 안정성, 사회성과 사려성이 더 높다 하였다[19]. 한 부모 가정아동의 적응 문제를 보면 학교 담임교사의 답변을 통해 볼 때, 그 아동들이 정서불안, 대인관계문제, 학업성적 부진 등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며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에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한다[20].

한 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들의 주거형태, 직업 등을 보면 잘 나타난다. 한 부모들은 직업이 긴 노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아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없고, 직업 훈련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부모 가정 한 부모는 긴 시간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19) 이순연, <缺損家庭 兒童과 正常家庭 兒童의 性格特性 比較硏究>, (1998), p. 6.
20) 박사라,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한 부모가정 아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새터어린이 학교의 한 부모가정 아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사례를 중심으로>, (2001), p. 7.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어린 나이의 자녀라면 엄마와 떨어지려 하지 않고, 엄마 역시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부모와 깊은 애정을 나눌 수 없는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학습 성취력이 낮아지기도 한다. 이렇게 경제적인 불안정과 자녀양육의 부담,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인해 한 부모 가정 한 부모는 가족,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부모 또한 자녀가 한 부모가 되었다는 이유로 자녀를 외면하거나 가문의 수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과 이웃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부모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 역시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한 부모 가정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 이혼 억제 및 방지 정책에 머무는 동안 한 부모 가정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자살을 생각하는 한 부모가 있고, 심지어 자녀와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부모 가정은 정부에 모, 부자 복지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정부지원 외에 상담, 부모교육, 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녀양육비와 학자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한 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으로 당하는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 부모 가정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 부모 가정의 아동은 정상가정에 비해 제한된 모델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미숙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부모 가정의 아동들은 심리 정서적, 사회성 적응 등의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장.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3-1-1 연구기간 및 장소
3-1-2 연구대상특성
3-1-3 연구실시방법
3-2. 측정도구
3-2-1 자아개념 검사
3-2-2 집, 나무, 사람 검사(HTP)
3-2-3 동적가족화(KFD)
3-3.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3-1 연구대상

3-1-1 연구기간 및 장소

(1) 장소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은 G시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중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의 의뢰로 부모의 부재로 인해 낮은 자기존중감과 문제행동을 가진 3명의 아동으로 하였다.

(2)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2007년 4월 19일~2007년 10월 11일까지 주 1회 총 19회기 실시되었으며, 매회 소요시간은 약 50분 정도였다. 장소는 지역아동센터 내에 있는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교실은 독립된 공간이었으며 교실 안에는 책상과

의자만 배치되어 있었다.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3-1-2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 아동들의 가족 배경은 다음과 같다.

A아동, 부의 알코올 문제와 음주 후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지난 2월 모는 가출하였고 모의 가출 후에도 부의 알코올 문제는 계속되어 술을 먹고 아이들에게 모의 부재의 이유가 아이들에게 있다 하며 상습구타를 하였다. 현재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생활을 꾸려가고 있으며 모의 부재로 인한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학교에 나가기 싫어하며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하는 등 힘들어 하였다. 친모는 가출 후 일년 동안 2번 명절, 그것도 부의 직업상 문제로 비어있을 때 집에 들린다고 하였다. 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으나 모의 형편상 어려운 상황이라 하였다.

B아동, 부의 사업실패 이후 가출로 편모가정이며 4남매 중 막내이다. 생활이 어려워 모께서 마트에서 일하시며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다. 부의 부재로 인해 집안에서 남자는 자기뿐이라며 싫다는 소리를 자주하였다. 부는 택배회사에 다니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선생님께서는 부가 연락도 하지 않으며 현 재혼을 했다고 하였다.

C아동, 부의 사업실패로 경제생활이 어려우며 오빠(대1)와 남동생(초3)이 있다. 생활이 어려워 모께서는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신다 하였다. 연구자를 바라보며 얼굴에 경직이 나서 떨림이 있을 정도로 계속 웃는 얼굴을 계속 하였으며 이유를 물으니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찡그리는게 싫어서 웃는다고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특징은 <표 7>과 같다.

<표 7> 연구대상 아동들의 특징

이름	연령	성별	아동의 문제행동	현재상황
A 아동	12세	남	고집이 세고 억지를 부린다. 집중을 못하며 책상을 때리고 발로 차는 반응을 하며 형에게 매우 의존하며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사에 부정적이고 기관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음식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부의 경제활동으로 생활 모와는 전화통화만 함
B 아동	12세	남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잘하며 싫다, 안한다, 귀찮다는 소리를 잘한다. 집중을 못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치며 소리를 내는 행동을 한다. 친구들 사이에 리더 역활을 하기는 하나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하지 않는다.	모의 경제활동으로 생활 기초생활 수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
C 아동	12세	여	무기력하고 우울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으며 부정적이고 안해, 싫어 라는 말을 잘 한다. 아무 이유 없이 때때로 폭력적이다.	모의 경제활동으로 생활

3-1-3 연구 실시 방법

연구자가 선택한 자아존중감 검사와 HTP, KFD 검사를 가지고 부모의 부재로 인한 아이들의 행동에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19회기 실시 하였으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 사전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모의 부재로 문제행동을 느끼는 아이들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 해소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정하고자 하였다.

3-2-1 자아존중감 검사

쿠퍼스미스(Coopersmith), 자아존중감 검사(Self Esteen Inventory: SEL) DHK 팝(Pope), 크레이헤드(Craighead)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1997년에 신철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검사지를 이용하였다. 이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아동의 총체적, 사회적, 가정적, 학교 내 자아존중감의 4개의 하위 척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어있으며 각각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내용이 대상자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단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해서는 점수를 반대로 계산 한다. 이 검사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자아존중감의 각 하위 척도의 내용 및 구성은 <표 8>과 같다.

<표 8> 자아존중감의 하위척도 구성

하위척도	문항번호
총체적 자아존중감	1,5,9,12,17,21
사회적 자아존중감	2,6,10,14,18,22,25,28,31
가정적 자아존중감	3,7,11,15,19,23,26,29,32
학교 내 자아존중감	4,8,12,16,20,24,27,30

3-2-2 집, 나무, 사람 검사(HTP)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을 이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세기말부터 시작되었다. 구든너츠(Goodenough)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규준이 되는 인물화의 발달 과정을 연구했으며, 그림과 지능의 발달 관계를 규정했다. 이후에 헤리스(Harris)는 구든너츠(Goodenough)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켰다. 이 인물화와 지능의 발달 관계를 규정한 검사는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김재은, 여광응 등이 “인물화에 의한 간편 지능검사”로 표준화작업을 하였으며 지금도 발달지체아동의 지능 측정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마코벌(Machover)는 아동의 그림에 대한 임상적 해석 기준을 마련하여 “인물화에 의한 성격검사”를 개발하였다. 피험자가 그린 인물을 가지고 그 피험자의 성

격특성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후 코비츠(Koppitz)는 발달에 따른 점수와 체계와 인물화의 분석을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벅(Buck)은 단일과제의 그림검사보다는 집-나무-사람을 그리게 하는 것이 피험자의 성격의 이해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집-나무-사람(House-Tree-Person)그림을 발달적, 투사적인 측면에서 연구했다. 벅(Buck)이 집, 나무, 사람의 3가지 과제를 사용한 것은 첫째, 집, 나무,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밀감을 주는 것이며, 둘째, 모든 연령의 피험자가 그림대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며 셋째, 다른 과제보다는 솔직하고 자유스러운 언어표현을 시킬 수 있는 자극으로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졸리스(Jolles)는 집, 나무, 그리고 사람에 대한 특성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했다. 또한 해머(Hammer)는 투사적 그림의 임상적 적용을 확대했다.

3-2-3 동적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 KFD)

동적가족화는 가족화(Drawing A Family)에 움직임을 첨가한 일종의 투사법이다. 번스(Burns)와 카프맨(Kaufman)에 의해 발전된 동적가족화는 개인을 통해 가족의 역동성을 파악하기에 더욱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동적가족화는 주제통각검사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일반적인 가족화가 가지는 상동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있다(김동연, 1994). 따라서 연령순이나 사회적 지위순으로 그리는 가족화의 단점을 보완하여 가족구성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를 투사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동적가족화는 정신분석학과 장이론, 지각의 선택성 등과 같은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특히 내담자 자신의 눈에 비친 가족들의 일상생활태도나 감정을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내담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이러한 판단은 내담자의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상태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객관적,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인지라기 보다 자신이 주체적,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주관적, 심리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인지가 적용되는 것이다. 가족치료의 입장에서 볼 때, 동적가족화의 도입은 의식적, 무의식적 투사기법으로써 내담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3.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표 9>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단계	활동목적	회기	주제	활동내용	기대효과
초기단계	사전검사		오리엔테이션	·미술활동에 대한 소개 ·집, 나무, 사람 그리기 ·동적 가족화 ·자아 존중감 검사지	친밀감과 아이들의 내적 갈등을 파악, 라포형성
	친밀감 형성단계	1	자유화	좋아하는 색 표현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긴장감, 거부반응 감소
		2	나를 소개	찰흙을 뭉치거나 만지면서 이름을 소개	자기탐색, 자기이해
		3	난화	낙서놀이를 하며 표현	자유로운 표현, 친밀감 확대, 특성 찾기
중기단계	자기표현 & 욕구분출	4	나의 이름	나를 생각해 보고 느껴지는 모습대로 꼴라쥬	자기에 대한 통찰력 자기에 대한 판단
		5	나의 장점	나의 장점을 생각해보고 글로 쓰기	자기탐색
		6	동물가족화	가족과 닮은 동물을 찾아 꼴라쥬	가족의 균형에 탐색
		7	나의 두얼굴	자기가 싫어하는 표정을 생각하며 꼴라쥬	나의 모습을 표현 통찰
		8	(싫어하는것) 숨은그림찾기	종이에 싫어하는 것을 그린 후 찰흙으로 던져 맞추기	자신이 힘든 부분을 솔직한 느낌으로 표출
		9	신문지 찢기	신문지를 마음대로 찢어보기	분노를 해소
		10	신문지로 만들기	찢은 신문지를 종이풀로 뭉쳐 형태를 만들기	분노표출 완결 자기승화
		11	찰흙놀이	점토를 사용하여 마음대로 주무르고 두드린 후 느낌을 표현	느낌을 표출
		12	찰흙놀이	주무르고 두드렸던 점토로 형태를 만들기	느낌을 이야기 문제인식 후 승화
		13	찰흙으로 만들기	찰흙으로 좋아하는 것을 만들기	자신의 좋은 감정을 표출
말기단계	미래의 나	14	전신화	짝을 정해 상대방의 모습을 그려보고 꾸미기	자기모습을 인식, 자신감
		15	휴지통 만들기	우리들의 휴지통을 만들기	문제 인식
		16	휴지통에 버리기	휴지통에 버리고 싶은 나의 모습을 종이컵으로 만든 후 버리기	나에게 소중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파악 후 완성
		17	미래의 나의모습	미래의 나의모습을 생각한 후 꼴라쥬	자신을 인식, 자기승화
		18	받고 싶은 상장 만들기	자신이 갖고 싶은 상장 만들기	자신감
		19	소원나무 만들기	미래에 나는 이라는 제목을 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나무에 그리거나 만들기	자기 승화
	사후검사			·집, 나무, 사람그리기 ·동적 가족화 ·자아 존중감 검사지	자기 승화 후 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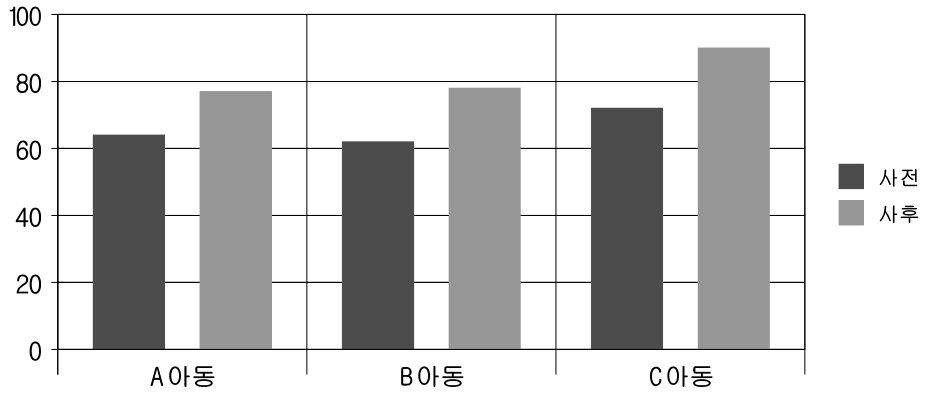
제4장. 연구결과

4-1. 자아개념 검사를 통한 변화
4-2. 그림검사에 의한 변화
4-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변화
4-3-1 A아동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진행
4-3-2 B아동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진행
4-3-3 C아동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진행
4-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문제행동 변화

4-1. 자아존중감 검사를 통한 변화

집단미술치료의 사전, 사후에 실시한 자아존중감 검사를 통해 미술치료가 한 부모 가정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각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는 아래<그림 1>과 같다.

A아동은 사전 자아존중감은 64점이었으며 사후에는 77점으로 13점 향상되었으며 B아동은 62점에서 사후 78점으로 16점 향상되었다. C아동 역시 사전 72점에서 사후 90점으로 18점 향상되었다. 이로서 결과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의 사전과 사후의 점수변화를 통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다.



<표 10>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검사결과

이름	사전	사후
A아동	64	77
B아동	62	78
C아동	72	90

4-2. 그림검사를 통한 변화

미술치료가 한 부모 가정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미술치료 활동의 사전, 사후에 그림검사(HTP, KFD)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집-나무-사람 (HTP : HOUSE-TREE-PERSON)

HTP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을 이용한 것으로 비교적 최근인 19세기말부터 시작되었다. 구든너츠(Goodenough)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규준이 되는 인물화의 발달 과정을 연구했으며, 그림과 지능을 발달 관계를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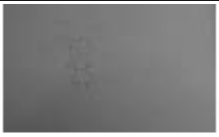
정했다.

<표 11> A아동의 HTP사전·사후 검사결과

	사 전		사 후	
집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연필을 꽉 잡 은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문을 그릴 때 다시 머뭇 거렸으며 다 끝낸 후 한숨을 쉬었으며 힘들다고 하였다.		커다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며 아파트를 그린 후 멋지다고 말하였다.
나무		괴물 나무를 그리겠다며 그러다가 괴물나무 모습이 누구랑 닮았다며 말한 후 한숨을 쉬었다.		일반적인 나무의 모양이 나왔으며 나무를 그리는데 편하다고 했다.
사람		사람은 가장 힘들다면서 시작하는데 가장 오래 걸렸다. 그린 다음엔 힘들다며 한숨을 쉬었다. 여자의 모습은 그리지 못하였다.		사람그리는것을 힘들어하였으나 사람의 형태를 그렸으며 그린 후에 자신과 닮았다며 연구자에게 웃어보였다.

A아동은 사전 검사에서 창문이 없는 집을 그렸고 괴물나무를 표현했으며 사람을 그리기 힘들어하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림을 그렸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창문이 나타나고 문을 그렸으며 일반 아동들이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의 나무를 그렸으며 사람을 안정되게 표현하여 나타냈고 전체적인 구도가 안정되고 필압도 강해졌다.

<표 12> B아동의 HTP사전・사후 검사결과

	사 전		사 후	
집		한숨을 쉬고 시작하기 시작했다. 지우게질이 많았으며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위표를 치고는 다시 옆에다 작게 그렸다.		가방을 놓지 않았고 기분이 좋다며 자신감있게 그리기 시작하였다. 집만 그려야 하냐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너무도 기분이 좋다는 말을 2번이나 하였다.
나무		연구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였다. 자신감 있게는 하였으나 그리고 난 후 황급히 교실을 나갔다.		사람보다는 나무가 더 재미있다며 편하게 그리기 시작했으며 즐겁고 재미있다고 하였다. 자기 중심적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모습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해석된다.
사람	 	사람을 가장 그리기 힘들어 했으며 지우게를 많이 사용 하였다. 머리를 그리는데 남,녀 같은 모습을 그린 후 옷만 바꿔주었다.		사람을 자신감 있게 그리긴 했으나 눈은 아직도 그리기 힘들다며 안경을 씌웠다.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은 보이나 아직은 소극적인 모습으로 해석된다.

B아동은 사전검사에서 집을 그리다가 기분이 나쁘다며 가위표를 치고 같은 종이에 그렸던 것보다 작게 집을 그렸으며 나무역시 몽환적인 느낌의 나무를 그린 후 나무가 울고 있다며 기분이 나빠진다고 하였으며 사람도 머리카락을 그리지 못하고 여자 남자 똑같이 그렸고 힘들어 하였으며 지우게 질을 많이 하였다. 사후 검사에는 달과 집을 그렸으며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라며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사람을 더 현실화 있고 안정적으로 표현했으며 전체적인 구도가 안정적이다.

<표 13> C아동의 HTP사전・사후 검사결과

	사 전		사 후	
집		그릴게 없다며 힘들어 하였고 예전에 책에 나온 집을 그렸다.		사후에 여러 가지 모습을 그리고 싶다며 커다란 집을 자신감 있게 그리며 현실감 있어 보인다.
나무		나무를 그리기 힘들어 했으며 역시 동화 속에 나온 나무를 그렸으며 그리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나무를 그리면서 기분이 좋다고 하였으며 자신감 있게 큰 나무를 거침없이 그린 후 나무가 예쁘다며 웃었다.
사람		집, 나무, 사람 중 사람을 가장 그리기 편해 했으며 그리면서 남자그림을 그리기 힘들어 하였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림을 그렸다며 나들이를 가서 즐거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렸다고 직접 설명하였다.

C아동은 사전 그림에서 집을 그리기 힘들어하며 가정에 대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나무에서 뿌리를 선명하게 보임으로써 불안을 느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숨과 힘들다는 이야기 등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반면에 사후에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며 의인화에서 현실화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동적가족화(KFD : Kinetic Family Drawing)검사

가족 구성원이 뭔가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지시하며 아동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검사 장소를 심리적으로 익숙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실시 하였다.

A아동은 사전검사에서 가족을 그리지 못하였으며 자신만 바라보고 화내

고 있는 선생님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기분이 나쁨을 연구자에게 말하였다. 사후검사에서는 가족모두 같이 등산하는 모습을 그렸으며 상호연관성이 있으며 가족 모두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14> A아동의 KFD사전・사후 검사결과

	사 전	사 후
동적가족화		
	집에서의 우리가족 모습을 그리기 싫다면서 학교모습을 그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림에서는 선생님의 모습에 칼을 그렸으며 기분이 매우 나쁘다며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며 뛰어 나가 버렸다.	가족끼리 등산을 가고 있다고 하였다. 아빠 엄마랑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라며 모두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라고 하였다.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아빠 엄마를 중심으로 시선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아동과 가족 내에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B아동의 KFD사전・사후 검사결과

	사 전	사 후
동적가족화	그림을 그리지 못하였다.	
	.	모두 집안 일을 도우면서 웃고 있다고 한다. 엄마가 너무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고 있어서 기분이 좋다 하였다. 그림이 안정감이 있고 가족에게 인정받고 있는 아동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족 모두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B아동은 사전검사에서 가족을 그리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론하였으며 결국 가족을 그리지 못하고 회기를 끝냈으며 자신만 바라보고 화내고 있는 선생님을 그렸다. 전체적으로 불안하다 했다. 사후검사에서는 가족모두 함께 집안일을 하며 웃는 모습을 그림으로 가족 모두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6> C아동의 KFD 사전·사후 검사결과

	사 전	사 후
동적가족화		
	가족 모두를 그리는 것에 가장 힘들어 했으며 모두 앞을 보는 모습은 가족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나며 자신을 가장 나중에 그려 자신이 거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보이며 자신을 가장 적게 그림으로써 자신이 무기력하고 가족 내에 소외당하는 느낌을 엿볼 수 있다.	사후에는 가족 모두 달리기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얼굴표정들이 재미있다 하며 그리는 내내 기분이 좋다는 말을 했다. 가족 모두 움직임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어 보이며 사전검사에서 자신을 가장 작고 떨어져 그린 반면에 사후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가족 안에 그려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아동은 사전검사에서 가족모두를 그리는 것을 힘들어 했으며 자신을 가장 나중에 그려 가족내에서 자신이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무기력함을 보여주었으며 사후에는 가족모두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달리기 모습을 그림으로 자신을 가족과 동화시킴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변화

4-3-1 A아동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진행

(1) 초기단계 (1~3회기)

<그림 1> 나를 소개

오리엔테이션이 지나고 1회기에는 연구자가 A4용지를 주며 자유화를 해보라고 하자 “아~왜요? 싫어요”라고 말하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낙서를 하며 “아 진짜 싫다 재미없어”를 반복하며 연구자의 눈치를 살폈다. 연구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하며 연구자와 눈을 마주치게 되면 고개를 돌리며 연필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며 연필을 책상에 박자를 맞추며 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책상을 치다가 소리에도 연구자가 반응이 없자 20분이 지나도 여전히 고개를 숙여 종이만 바라보며 결국은 “아 못하겠다. 다음에 할께요.” 라고 한 뒤 “가도 되요?“ 라고 물어본 후 연구자의 대답을 듣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버렸다.

2회기에는 찰흙으로 하였는데 1회기 때처럼 싫다는 소리를 반복하며 여전히 눈치를 많이 살폈고 시작한지 20분 만에 찰흙을 만지기 시작하였다. 찰흙을 만지다가 <그림1>에서와 같이 칼과 수리검을 만든 후 “다 죽여버릴꺼야” 라는 소리를 하며 친구들을 찌르기 시작했다. 여전히 책상을 치면서 박자를 맞추듯 소리를 내는 행동을 계속하였으며 연구자가 “다 한거니?” 라고 묻자 대답하지 않고 계속 친구들에게 장난을 쳐도 반응이 없자 “짜증이네” 라고 하며 만든 칼을 바닥에 던져서 형태를 없애버렸다. 치료시간에 의자를 드는

행동을 하며 왔다갔다 치료실을 안을 산만하게 움직였다. 연구자가 느낌을 말해보자고 질문을 하자 “싫어요, 아～왜요” 라고 말한 후 나가버렸다. 3회기에 연구자가 왔을 때에 A아동은 먼저 치료실에 와 있었다. 연구자가 들어왔어도 바라보지 않았으며 책상을 치는 행동을 계속 하였으며 이번 3회기에 난화를 하자고 하며 종이를 주자 종이를 보자마자 찢기 시작하였다. 치료자는 관찰자 입장이 되어 다 찢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찢으니까 기분이 어떠니?” 라고 질문하였고 그 질문에 “오늘 기분이 거지같았는데 더 거지 같아요” 라고 대답하였다. 시간을 주고 다음 행동을 기다리다 “오늘 무엇을 할꺼에요” 라는 물음에 그룹 난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치료자가 종이를 주자 싸인펜을 고른 후 다른 사람들이 시작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시작하였다. 끝났다고 하며 난화를 보다가 “칼이다”라며 다른 색 싸인펜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였다. 다른 아동들이 짜증을 내며 기다리라고 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그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다른 아동들이 그림을 뺏자 욕과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러다 자신보다 큰 아동이 손을 들어 A아동의 키가 올라가지 못하는 곳에 그림을 놓아버리자 “아～씨발”하는 욕과 짜증을 내며 치료실을 나가버렸다.

(2) 중기단계 (4～13회기)

① 4회기～6회기

<그림 2> 나의 이름

<그림 3> 나의 장점

4회기에는 자신의 모습을 꼴라쥬를 하였는데 한참을 잡지를 찾다가 더워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며 투덜거렸다. <그림2>에서와 같이 사람을 선택한

후 목을 가위로 자르고는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자신에 대한 기분을 직접 설명했다. 잡지가 너무 많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회기와는 다르게 자신의 모습을 표현 하는 거라는 연구자의 말을 듣고 끝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1시간이 넘게 걸린 작업이었으며 수업 내내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리를 움직이는 등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계속 되었다. 5회기는 나의 장점을 말하고 글로 표현 해 보자고 하였다. 장점을 말해보자고 하자 “없어요” “싫은데, 아 왜요”라고 말을 하며 책상을 탕탕 두드리기 시작했다. “책상을 두드리니까 기분이 어떠니” 하고 연구자가 물어보자 “상관없잖아요” 라고 애기하며 연필로 쓰다가 자리에 일어나서 교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며 나가버렸다. 그러다 다시 들어와선 장점을 쓴 종이에 빠른 손놀림으로 쓴 글을 <그림3>과 같이 지워버렸다. 왜 이렇게 했냐는 연구자의 말에 “그냥요”라는 대답과 함께 다시 나가버렸다. 6회기에는 동물가족화를 하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연구자가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하자 “그따위 꺼 생각 할 필요 없어요”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화를 냈다.

6회기부터는 연구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 했고 표정도 많이 좋아졌다. “아～왜요, 없어요, 싫어요.” 라는 말이 줄었고 집중하는 시간도 길어졌다. 동물그림을 가위로 자르다가 “이거 합성시켜두 되요?” 라고 연구자에게 묻고 “자기 생각대로 해도 되요.” 라고 연구자가 말하자 동물 그림의 목을 가위로 자른 후 다른 동물의 몸에 붙이기 시작하였다. 연구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선생님한테 알려 줄 수 있겠니?”라고 묻자 “재미있잖아요.”라고 대답한 후 10분 정도 뒤에 “실은 아빠 엄마 형에게 맞는 동물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② 7회기～10회기

7회기에는 <그림4>에서와 같이 나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자신이 싫어하는 표정을 꼴라쥬 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잡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말하며 다른 회기보다 더 집중 하였다.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잡지가 적다는 이야기 하면서 “이것도 합성해도 되지요.”라고 말하며 연구자의 대답

<그림 4> 나의 두얼굴

<그림 5> 신문지 찢기

을 듣기 전에 가위로 사람 목을 자른 후 다른 표정을 합성시켰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어때”라고 묻는 연구자를 바로 쳐다본 후 “이 그림은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바꾸니까 기분이 괜찮네요.”라고 대답하였다. 너무 잘 한다며 연구자가 계속해서 칭찬하니 자기가 원래 이런 걸 잘 한다며 기분 좋아하였다. 작업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갔고 “나는 천재야.”라고 애기하며 좋아하였다. 8회기에는 숨은그림 찾기를 하였는데 “숨은그림 찾기는 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론하였다. 전지를 준 후 싫어하는 것을 그려보자고 하자 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연필을 든 후 작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게 무엇일까?”라고 연구자가 묻자 “선생님은 이것도 몰라요, 악마잖아요.” 그림에 쓴 글은 아빠 화난 모습이라고 써 있었으며 연구자가 너무 열심히 그려서 기분이 좋다고 하자 웃으면서 멋쩍어 하였다. 그림이 마음에 드는지 묻는 연구자에게 악마를 좋아 하는 사람도 있냐며 찰흙을 들곤 조그마하게 뜯어서 던져 맞추기 시작하였다. 자꾸 빗나가자 찰흙을 점점 크게 뜯어내어 던져서 맞춘 후 환호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7회기 때부터는 집중을 하면 욕을 하거나 책상을 치는 행동이 다소 줄었다.

9회기, 10회기에는 신문지 찢기를 찢은 후 찢은 신문지로 만들기를 하였는데 신문지를 주자 신문을 읽는 척하자 연구자가 “이런 것도 읽을 줄 아는 거야. 대단하네.”라고 하자 “나 똑똑하죠.”라고 이야기하며 뿌듯해 하였다. 9회기부터는 연구자의 이야기에도 대답을 잘하며 교실을 돌아다니는 행동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싫어요, 안해요, 아 왜요’ 라는 대답도 줄어들며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하며 연구자에게 질문을 시작하였다. 신문지를 찢기

전 연구자가 “가장 싫어하는게 무엇이니.” 라는 질문에 “이야기하기 싫어요.” 라고 말 하였다. 그 말에 연구자가 “그럼 말 하기 싫은 내용이 신문지라고 생각해 볼까?” 라고 묻자 “지금해도 되요?”라고 대답하며 연구자가 시작하자고 하자 신문지를 찢기 시작하였다. 찢다가 “줄다리기 해요.”라며 신문지 한쪽을 잡은 후 나머지 한쪽을 연구자한테 주며 줄다리기 시늉을 하였다. 종이가 여러 장 있으면 잘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A아동이 힘을 주며 “더 힘껏 당겨요 더요.”라고 소리치며 즐거워했다. 그러다가 다른 아동 중 한명이 “너 여기 들어가 봐.” 라고 말하자 <그림5>에서와 같이 신문지 더미 속으로 누웠다. 신문지 더미 속에서 즐거워하며 소리를 치며 “신문지 더 덮어”라고 하였다. 한참을 신문지 속에서 소리치며 즐거워하다가 다른 아동에게 신문지를 뿌리자 다른 아동들도 신문지 속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치며 웃었다.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우리 다음에 또 해요.”라는 말을 하였고 “자 이제 그만할까?”라는 연구자 질문에 “싫어요, 조금만 더해요.”라며 신문지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한참 후 “이제 그만해요”라고 하며 나와서 신문지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정리를 끝낸 후 기분이 어떠냐고 하자 “시원해요.” 라고 말한 후 인사를 하고 나갔다.

③ 11회기～13회기

<그림 6> 찰흙 만들기

11회기에는 찰흙으로 감정을 표현해 보자고 연구자가 말하자 “찰흙으로 다 해도 되요?” 라고 말하며 조금 찰흙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찰흙을 두드리다가 찰흙을 던지고 싶다고 하여 연구자가 종이를 벽에다 붙혀주자 던져서 종이를 맞추기 시작하였다. 다른 아동들과 같이 맞추면서 즐겁게 소리를 치며 “분위기 최고”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며 찰흙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찰흙으로 만들기를 하자고 하자 찰흙을 만지다가 사람이라며 찡그리고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 만든 후 <그림6>과 같이 찰흙으로 못을 만든 후 가슴에 박았다. 그런 후에 닮았죠. 라고 말하며 연구자에게 보여주었다. “못이 박혀 있으면 아프겠다. 우리 같이 뽑아 줄 수 있겠니?” 라고 연구자가 애기하자 “오늘 말구요, 다음에요.” 라고 애기하며 연구자에게 웃어보였다. 13회기에는 찰흙과 신문지를 가지고 찰흙놀이를 해 보았는데 다른 회기보다 아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엿볼 수 있었다. 연구자가 물과 신문지를 같이 주자 물속에 찰흙을 담군 후 신문지로 싸기 시작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좋은 거 해 줄께요.”라고 말하며 서로 만들 것을 배분한 후 한참을 집중해서 만들기 시작하였다. “무엇인데, 선생님 보여주면 안되니?” 라고 하자 “안되요, 다음에 봐요.”라고 하며 연구자한테 보여주지 않았다. 다했다고 연구자의 손을 끌어 짜잔 하며 보여주였다.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며 보여 준 것은 찰흙으로 만든 밥상이었다. 연구자가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좋네, 고마워.” 라고 하자 “진짜요.”라고 하며 즐거워하였다.

(3) 말기단계 (14~19회기)

① 14회기~16회기

14회기에는 전신화 그리기를 하였는데 그림을 그리기 전 연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돈, 컴퓨터 등이라고 하다가 주제를 보고는 자기 자신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연구자와 전신화 그리기를 하며 즐거워 하였으며 자신이 키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며 더 많이 크게 되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하겠다며 키가 더 많이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15회기 16회기에는 휴지통 만들기를 하였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적거나 그려서 휴지통에 버리기로 하였다. 꼭 구체적으로 그리거나 써야하냐고 물어보는 아동에게 자신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다고 하자 한참을 고민하다가 글로 쓰기를 시작하였다. 시작 후 아무도 보면 안된다며 적은 종이를 갈기갈기 찢기 시작하였다. 찍으며 쓰레기통에 버린 후 기분을 묻자 시원 섭섭하다고 하였다. “섭섭한 느낌이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자 “글쎄요.” 라고 말하며 웃어보였다.

② 17회기~19회기

<그림 7> 미래의 나의 모습

17회기에는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해 꼴라쥬를 하였다.

<그림7>과 같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는 젊은 남자를 붙이고 자신의 다른 모습을 없애버리고 싶다며 종이하나를 더 가지고 가선 무서운 인상의 남자를 붙였다. “선생님은 이 사람이 화난 것 같은데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자 “맞아요, 악마에요.” 라고 애기하며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나쁜 놈 모습이라고 하였다. 또 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형이랑 둘이만 재미있게 살고 싶다며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연구자에게 “선생님은 어른이여서 좋겠다.” 라고 말하며 빨리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먹어야겠다고 하였다. 18회기에는 자신이 받고 싶은 상장을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상장을 받아 본적이 없다며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참을 고민 하다가 자신은 글씨를 못 써 상장을 망칠 것 같다고 표지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연구자가 써줄려고 하자 괜찮다며 자기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상장쓰기를 하면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고 하였으며 연구자에게 처음 받는 상장이라 기분이 너무 좋다고 다음에는 진짜 상장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소원나무 만들기였더 19회기에는 연구자가 무슨 소원이던 나무를 행복하게 그려서 붙여주면 다 이뤄지는 나무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럼 내 소원도 다 들어주는 거에요?”라고 말하며 나무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나무를 그리면서 다른 아동들과 구름을 잘라 붙이면서 사랑이 있어야 나무가 잘 큰다며 하트를 잘라서 붙이기 시작하였다. 또 물고기를 잘라서 붙이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고기가 부럽다며 물고기가 되고 싶다며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며 자유롭게 된다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며 웃음을 지어보였다. 소원나무를 그릴 때는 짧은 대화를 가진 후 자신

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노래를 부르니 기분이 어떠냐고 했더니 미술시간에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니까 점점 기분이 좋다고 하였다.

4-3-2 B아동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진행 내용

(1) 초기단계 (1~3회기)

<그림 8> 나를 소개

B아동은 A아동의 학교 친구이다. 센터에 왔을 때 연구자를 위아래로 쳐다보며 기분이 안 좋다며 "짜증나 이딴 거." 라는 말을 하였다. A4용지를 주자 눈치를 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 하였고, 그리는 중간 중간 책상을 치거나 의자를 발로 차는 행동을 보였으며 그림을 그리는 내내 계속해서 연구자의 눈치를 살폈다. 연구자와 눈 맞춤이 되지 않았으며 시작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그림을 그리다가 교실을 나가버렸다. 2회기에 찰흙으로 하자고 하자 그림보다는 괜찮다며 찰흙을 만지다가 A아동과 함께 벽에 던지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석기시대 고인돌이 연상된다며 <그림8>에서와 같이 칼과 바위 낫, 등 석기시대 유물을 만들었다. 3회기에 B아동은 종이를 쥐어주자 한참을 종이만 쳐다보고 있다가 가방을 가지고 나가 버리려고 하였다. 연구자가 나가는 B아동에게 "오늘 수업하지 않을 거니?" 라고 하자 "오늘을 하기 싫어요. 다음 시간에 할께요." 라고 대답하고 나가 버린 후 들어오지 않았다.

(2) 중기단계 (4~13회기)

① 4회기~6회기

4회기에는 자기 모습을 꼴라쥬 하였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은 처음

<그림 9> 나의 장점

해본다며 아무거나 해도 되냐며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잡지를 한참 뒤적거리며 이것저것 보다가 결국은 “아 진짜 없네, 선생님 더 없어요?”라고 애기하였으며 연구자가 더 많은 잡지를 가져다 주자 기분이 좋다 말하며 다시 찾기 시작 하였다. 수업시간이 얼마나 남았냐고 묻자 얼마 안 남았다고 대답하는 연구자에게 그럼 다했다 하며 여러 가지 잡지를 찢어 붙이곤 여러 가지의 내 모습이 다 있어서 고르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림을 보며 찢은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기분 답답하다고 하였다. “무엇이 답답한지 선생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라고 묻자 B아동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없어서 아무거나 찢어서 선생님을 주었는데 이상한 거 같아서 신경이 쓰인다고 하였다. 5회기에서는 자기 장점을 글로써 이야기해 보자고 하자 한참을 생각하다가 장점이 없다며 책상을 치고 있는 A아동과 같이 책상을 치기 시작하였다. 한참을 그렇게 치다가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연구자에게 “선생님도 해 보세요” 하며 연구자의 손을 들고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연구자가 “선생님은 손바닥이 너무 아픈데.” 라고 하자 “원래 이런 거는 아프라고 하는 거에요.” 라고 하며 한참을 책상을 내리쳤다. A아동이 치료실을 나가버리자 자기도 나가고 싶다며 답답하다고 하였다. “오늘 하기 싫으니?” 라고 묻자 하고 싶기는 한데 답답하다며 가슴을 쥐어짜는 행동을 하다 “선생님 생각났어요.” 라고 대답한 후 <그림9>와 같이 집을 그렸다. 5분도 안돼서 다했다 하며 가도 되냐는 말에 그렇게 하고 다음시간에는 같이 기다렸다가 가자라고 하니 알았다며 인사를 하고는 치료실을 나갔다. 6회기에 동물그림들을 보자마자 “시작해도 돼요?”라는 말과 함께 가위로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림을 잘라서 붙이는 모습은 다른 회기와는 다르게 활동적이며 적극성을 뛰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오늘 B가 적극적인거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 B는 어떠니?” 라고 묻자 “오늘은 재밌어요.” 라고 대답하며 웃었다. 선

생님이 봐도 되냐고 묻자 갑자기 종이를 찢기 시작했다. 한참을 찢은 후에 “이제 볼 수 없죠.” 라고 말했다. 연구자가 “찢으니까 기분이 어떠니?”라고 묻자 “좋아요. 이제 아무도 볼 수 없잖아요.”하고 웃으며 치료실을 나갔다.

② 7회기～10회기

<그림 10> 나의 두얼굴　　<그림 11> 신문지로 만들기

7회기의 나의 두 얼굴이란 주제를 듣고는 이것도 잡지로 찾아보는 것이냐고 하였다. 그렇다고 하니 잡지를 빠르게 뒤적거리다가 “와～찾았다.”라고 말하며 즐거워하였다. 영화 포스터를 찢고는 사람이 자기랑 똑같기 생겨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림10>와 같이 다른 사진을 찢어 붙였다. 그런 후 이제야 마음에 든다며 즐거워 하였으며 “기분이 어떠니?”라고 묻는 연구자 말에 “오늘 기분 최고에요.” 라고 하며 웃었다. 자기가 싫어하는 표정을 생각하며 꼴라쥬 하는 거라고 하니 쉽고 편해서 잡지가 가장 즐겁다면서 “오늘 진짜 최고다.”라는 말을 3번 하였다. 8회기에는 숨은그림찾기를 하였는데 자신이 그림을 종이에 함께 그려서 그림을 찾아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것 이었다. 이것은 자신이 힘든 부분을 솔직한 느낌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숨은그림찾기는 쉬워야 한다면서 아주 크게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림을 보면서 기분이 어떠냐는 연구자의 말에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오늘은 쉬워서 좋다고 하였다. 9회기에 치료실로 들어온 B가 책상위에 쌓여있는 신문지를 보고는 “오늘 무엇을 하는 거에요?”라는 질문을 연구자에게 먼저 했다. 오늘은 “신문지 찢기 놀이를 할 거야.” 라는 연구자의 대답에 시작 한다고 하고는 신문지를 찢기 시작하였다. 앉아서 찢다가 일어나서 해도 되냐고 물었고 곧

바로 일어나서 찢기 시작하였다. 한참을 찢다가 부족하다며 옆에 신문지 뭉치를 더 가져와서 찢기 시작하였다. 한참을 찢다가 A아동이 신문지 안으로 들어 가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덮어주라며 신문지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신문지 속에 있으니 기분이 어떠냐는 말에 따뜻하고 포근해서 기분이 좋다고 대답하였다. 신문지 안에서 있다가 “언제 나올꺼니.”라는 연구자의 말에 “나오기 싫어요. 계속 있어도 되요?” 라고 물었고 시간이 다 되서 나와야 한다고 하자 아쉬워하며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고 하였다. 10회기에는 <그림 11>에서 와 같이 9회기에 찢은 신문지로 만들기를 하였는데 갑자기 다른 아동들과 같이 귓속말을 하다가 선생님은 보면 안된다며 나가있으라고 하였다. 연구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두고 그 후 다시 들어가자 다른 아동들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연구자에게 주며 뿌듯해하였다. 선생님이 “기쁘구나.” 라고 하자 “다음에도 더 기분 좋게 해 줄께요.”라고하며 큰소리로 인사하며 치료실을 나갔다.

③ 11회기～13회기

<그림 12> 찰흙으로 만들기

11회기에 찰흙놀이를 하자고하자 예쁘게 만들어야하냐고 연구자에게 물어보았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연구자에게 여기를 오면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 하였다. 연구자가 “왜 기분이 좋을까?”라고 묻자 “이곳에 오면 친구들도 많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 하였다. 한참을 찰흙을 만지다가 바닥에 던지는 행동을 하며 벽에 던지고 싶다고 말 하였다. 연구자가 벽에다 종이와 아스테이지를 대주고 이제 시작해볼까 라고 하자 조그

마하게 만든 찰흙 던지기 시작하다가 다른 아동들의 찰흙까지 주운 후 크게 만들어서 던지기 시작하였다.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라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한참을 던지다가 "우와 시원하다. 진짜 오늘 최고에요." 라고 하면서 웃었다. 치료를 시작한 후 B아동이 웃는 모습을 2번째 보게 됐는데 이번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워하며 손뼉을 책상에 내리치며 웃었다. 13회기에는 11회기, 12회기에 던진 찰흙들로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그림12>와 같은 모양을 만들었는데 B아동은 만든 후 스스로 튼튼한 사람이 나팔을 불고 있는 모습이라며 설명하였다. 13회기에 다시 찰흙으로 만들기를 하자고 하자 찰흙을 한참 보고 있다가 다른 아동들과 귓속말을 한 후 이번에도 "선생님은 나가세요." 라고 한 후 연구자가 5분 후 있다가 들어가자 선생님 선물 하면서 찰흙 밥상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 착하죠." 라는 말과 함께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인사와 함께 치료실을 나갔다.

(3) 말기단계 (14~19회기)

① 14회기~16회기

<그림 13> 전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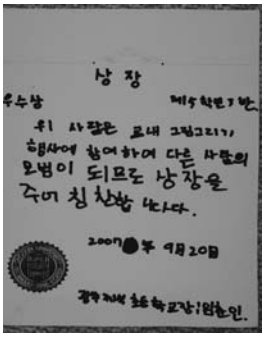
<그림 14> 휴지통 만들기

14회기에는 전신화그리기를 한다고 하자 짝을 정하는데 자신과 같은 남자아이와 함께 하겠다고 하였다. 다른 아동이 자기를 그려주겠다며 누우라고 하자 기분이 이상하다며 이대로 잠들고 싶다고 하였다. 한참을 그리다가 다른 아동이 다했다고 하자 일어나서 <그림13>에 그려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외계인 갔다며 웃었다. 웃으면서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며 "나도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였으며 연구자가 쳐다보자 부끄러워요 라고 하면서 오늘은 이만하겠다며 다른 아동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돌아

갔으며 기다리는 동안에 책상을 치는 행동과 돌아다니는 행동은 다소 계속 되었다. 15회기와 16회기는 휴지통을 만들어 자신의 버리고 싶은 모습을 만들고 버리는 과정을 통해 나의 문제인식을 하고 자신에게 소중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파악 한 후 완성하는 과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14>에서와 같이 사람의 얼굴 모습을 한 휴지통 만들었으며 만든 후 웃고 있는 휴지통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다며 자신이 쓰레기를 버려도 혼내지 않을 것 같다며 안심된다 하였다. 버리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하자 속 시원하다며 다음에는 더 큰걸 버리고 싶다며 쓰레기통이 작아서 버리지 못한 것도 있다며 조금 아쉽다고 하였다. “지금 더 큰 걸 만들어서 버려볼까?” 라고 연구자가 묻자 “괜찮아요. 다음에 해요.” 라며 연구자의 눈을 보며 웃어보였다.

② 17회기～19회기



<그림 15> 받고 싶은
상장 만들기

17회기에는 마법사가 짠하고 나타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며 마법사가 되고 싶다고 하다가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해서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잔득 붙였다며 요리사랑 마법사가 된 것 같아서 기분 좋다고 하였다. 18회기에는 상장을 만들어 보자고 하니 이제까지 받았던 상장이 없어서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할지 모른다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림15>에서와 같이 상장을 만들었다. 만든 상장을 한참 바라보고는 갑자기 “선생님 이거 다시 저 주세요.” 라고 하며 상장 수여식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상장 수여식을 한 후 “기분이 어떠니?” 라는 연구자의 말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날아 갈 것 같다고 하였다. “날아가면 어디를 가게 될까?” 라는 질문에 “엄마랑 아빠 옆에요.” 라는 말을 하며 연구자를 보며 웃었다. 19회기, 소원나무가 무엇이냐며 다른 아동들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소원나무에 대해 설명을 해주자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하겠다며 크레파스를 꺼내 먼저 그리기 시작하였다. 다 그리고 나서 예뻐 지기 위해선 예쁜 옷을 입혀줘야 한다며 나무에 색칠을 하기 시작하였다. 색칠이 끝난 후 그림을 보며 기뻐하였고 재미있다 말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동의 문제행동 또한 집중하는 시간 외에 욕을 하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행동, 책상을 내리치는 행동 등이 회기 당 2-3회로 줄었다.

4-3-3 C아동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진행

(1) 초기단계 (1~3회기)

1회기에 연구자가 수업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종이를 주면서 그림에 대해 설명한 후 그려보라고 하자 고개를 숙이고 못하겠다는 말을 했고 잘 그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자 한참을 종이만 바라보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연구자의 눈치를 살폈으며 연구자와 눈 맞춤이 되지 않았으며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한숨을 쉬었다. 찰흙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2회기에도 한참을 찰흙으로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이름을 찰흙으로 써도 되냐고 하였다. 한참을 더 만지다가 이름을 찰흙으로 만들고는 치료실을 나갔다. 3회기에 난화를 그려보자고 종이를 주자 한참을 종이만 바라보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힘이 없었으며 무기력하였다. 그림을 그리다 다른 아동들이 하기 싫다고 나가버리자 나가는 아동들의 모습을 한참을 쳐다보다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림을 완성한 후 기분을 물었더니 별로 안 좋다고 하였다. 연구자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라고 묻자 “몰라요.” 라는 말을 했다.

(2) 중기단계 (4~13회기)

<그림 16> 나의 이름

① 4회기~6회기

4회기에는 연구자가 꼴라쥬에 대해서 설명하자 관심을 나타냈고 사진을 골랐는데 자연과 사람과 화려한 색깔의 사진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꼴라쥬를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싫다, 귀찮고 정말 싫어' 라는 말을 반복하였으나 <그림16>과 같이 완성한 그림을 보고는 웃으면서 예뻐서 기분이 좋다고 하였다.

5회기에는 나의 장점을 글로 쓰거나 그려보자 하였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며 "단점을 적으면 안돼요."고 물었다. 그럼 단점 먼저 적어보자는 연구자의 말에 '털털하지 못하고 부끄럼을 잘 탄다, 이유 없이 화를 잘 내며 욱하는 성질이 있다.' 라고 적었으며 "그럼 이번에는 장점을 적어볼까?" 라고 하자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착하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을 한다.' 등의 이야기를 썼다. 연구자가 장점을 써보니 기분이 어떠냐고 하자 이렇게 장점이 많은지 몰랐다면서 "나를 더 알아가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라는 말을 하며 웃었다. 6회기에 동물그림을 보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동물하고 가족하고 틀려요 라고 얘기하며 다른 그림으로 대신 가족을 표현해도 되냐고 한 후 잡지를 한 참 읽다가 우리를 가족답게 하는 것이라는 사진을 보며 마음에 든다 하였다.

그 그림을 찢은 후 C아동이 가위를 가지고 서로 바라보며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 사진을 잘라 낸 후 휴지통에 버렸다. 찢은 이유를 묻자 다 마음에

드는데 그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며 “찢어 버리니까 기분이 좀 괜찮아 졌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② 7회기~10회기

<그림 17> 나의 두얼굴

<그림 18> 신문지 찢기

7회기에는 나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를 보여 주었다. 3, 4 회기 때처럼 한참을 잡지만 바라만 보다 다른 아동들이 찾아서 붙이기 시작하자 “언제까지 해야 해요.” 라는 말을 하며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연구자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못해요, 안해요, 싫어요.’ 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었으며 “힘들어요.” 라는 말을 하며 한참을 주저하였다. 그렇게 20분쯤 지나자 한숨을 크게 쉰 후 잡지를 찾기 시작했다. 한참을 그렇게 찾아 붙이고는 <그림17>과 같이 완성을 하였고 지금 기분이 어떠니 라고 묻자 “조금 전 보다 나아요.” 라는 말을 하였다. 8회기에 숨은그림찾기인 주제를 보고는 주제가 마음에 든다며 그림을 아주 조그마하게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림을 그린 후 찰흙으로 맞추기를 하는 다른 아동들을 쳐다보기만 하였지만 즐거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탄성을 질렀다. 9회기, 10회기에는 신문지 찢기를 한다고 하자 가위를 가져와서 자르기 시작하였다. “가위를 사용하면 어떠니.”라는 연구자의 말에 “조금 편해요.” 라고 대답하였지만 곧 가위를 내려놓고 손으로 찢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다시 가위를 사용하며 거칠게 자르기 시작하였다. 신문지를 길게 잡아서 팔랑거리고 있을 때 가위로 찢겨나가게 하며 거칠게 찢어내기 시작하였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손으로 다시 찢기었

으며 다른 아동들과 줄다리기를 하는 듯 <그림18>에 보이는 것과 같이 다른 회기와는 다르게 활동적이고 즐거워 하였으며 작업이 끝난 후 마음에 들어 했으며 시원하다며 다시 또 하고 싶다고 하였다. 기분이 좋아졌다고 스스로 말했다.

③ 11회기～13회기

<그림 19> 찰흙으로 만들기

11회기에 찰흙놀이를 한다고 하자 찰흙보다는 신문지가 좋았다며 다시 신문지 놀이를 하고 싶다고 연구자에게 말했다. 연구자가 다음에 또 신문지 놀이를 하겠다고 하자 입을 삐쭉거리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 후 한참을 찰흙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런 후 벽에 찰흙을 던지며 즐거워하는 아동들의 모습을 보자 8회기에서처럼 뒤에 물러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던지기 시작하였다. 조그만 찰흙조각으로 던지기를 하다가 점점 커다랗게 던지기를 시작하였고 결국은 다른 아동들과 겨루기를 하며 즐겁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찰흙으로 만들기를 할 때는 한 곳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를 만들고 싶다며 <그림19>과 같이 해바라기를 만든 후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라고 하며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연구자에게 보이며 뿌듯해 하였다. 연구자가 칭찬을 하자 으쓱거리며 즐거워 하였다.

(3) 말기단계 (14～19회기)

① 14회기～16회기

14회기에 전신화 그리기를 하였다. 전신화를 그리는 다른 아동들을 지켜보다가 “나 먼저 할래.” 라는 말을 한 후 짝꿍에게 먼저 그려달라며 종이에 누웠다. 다 그릴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으며 “눈을 감고 있으니까 꼭 죽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며 기분이 슬프다고 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이상하다며 웃다가 예쁘게 꾸며야 한다며 색칠하기 시작하였다. 생각하며 시작하는 시간이 짧아졌고 그림을 색칠할 때도 자신감 있게 그렸다.

15, 16회기에는 자신의 성격, 가족, 자신을 놀리는 친구, 자신의 나쁜 습관 등을 적은 후 연구자에게 부끄러워서 못 보여주겠다며 꾸깃꾸깃 종이를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다시는 쓰레기통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기분이 시원하다고 하였다.

② 17회기～19회기

<그림 20> 미래의 나의 모습

17회기에 주제를 보고는 꼴라쥬가 가장 재미있다는 말과 함께 다시 잡지를 뒤적거리다가 사진하나를 찢고선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열심히 운동하는 여자의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며 행동이 느리고 끈기가 없는 자신의 모습이 미래에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웃었다. 또한 미래의 자기가 돈도 많고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후 <그림20>을 만들었다. 18회기에는 상장만들기였는데 종이를 받은 후 바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였다. 연구자가 너무 잘 썼다고 말하며 “예쁜 글씨 때문에 받는 너도 기분이 너무 좋겠다.” 라고 하니 다음에는 선생님한테 줄 상장을 더 예쁘게 만들어 주겠다

하였다. 19회기에 소원나무 그리기를 하였다. C아동은 다른 아동들이 소원나무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물고기를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붙이기 시작했다. 예쁜 물고기가 어디에 가냐고 하니 “자유롭게 나무사이에서 놀다가 나무랑 살아요.” 라고 하면서 자유로운 물고기를 따라 가고 싶다 하였다. 회기가 다 끝나고 명상을 하면서 지금 느낌이 어떠냐는 연구자의 말에 편안하다며 따뜻하다고 하였다.

4-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문제행동 변화

<표 17> A아동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문제행동 변화내용

초기(1~3회기)	중기(4회기~13회기)	말기(14~19회기)
연구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며 눈을 마주치게 되면 고개를 돌리며 연필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였고 연필을 책상에 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책을 던지거나 의자를 발로 차서 쓰러트리는 행동 등 욕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행동을 계속하였다.	힘들다는 이야기나 책상을 치는 등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계속되었으나 회기 중에 욕을 하는 행동이 줄었으며 한 자세로 수업에 임하는 시간이 늘었으며 자신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고 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이 늘었으며 연구자와 눈을 마주치는 횟수가 늘었다.	회기 중에 책상을 치거나 책을 던지거나 의자를 발로 차서 쓰러트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였고 자신이 바라보는 것과 인식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어 올바른 상호 작용을 하게 되었다.

<표 18> B아동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문제행동 변화내용

초기(1∼3회기)	중기(4회기∼13회기)	말기(14∼19회기)
연구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며 눈치를 보며 그림을 하였으며 그림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치료실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는 행동과 A아동과 같이 의자나 책상을 치거나 책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였다.	회기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연구자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하였다. 회기 별로 점점 활동적이며 적극성을 뛰기 시작하였으나 책상을 치러나 소리를 지르며 치료실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는 행동은 계속되었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원활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는데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집중하는 시간 외에 욕을 하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행동, 책상을 내리치는 행동이 회기당 2-3회로 줄었다.

<표 19> C아동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문제행동 변화내용

초기(1∼3회기)	중기(4회기∼13회기)	말기(14∼19회기)
고개를 숙이고 못하겠다는 말을 하며 연구자와 눈맞춤이 되지 않았으며 그림을 그리는 내내 한숨을 쉬었다. 실수가 무섭다며 그림을 그리지 못하였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다 하였으며 결국 하기 싫다며 눈물을 보였다.	연구자와 눈맞춤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표현이 향상되었다. 회기 별로 여전이 한숨을 쉬긴 하였으나 활동적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분이 좋아졌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며 언어적인 표현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여 머뭇거리는 행동이 감소되었다. 친구와도 원활한 대화를 하는 등 스스로의 성장을 지속시켰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주체성을 띄게 되었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5-1. 결론
5-2.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부모의 부재로 인한 문제 행동을 해소하는데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행동 아동 3명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문제의 원인을 알아 아동들이 내적인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을 표출하여 해소시킴으로써 문제행동의 감소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검사, 그림검사(HTP, KFD)를 사전, 사후로 실시하여 분석하고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부모 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실시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관찰된 활동내용과 평가를 분석해 보았을 때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향상 및 문제행동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A아동의 경우는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사전보다 실시한 사후에 친구와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것과 인식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어 올바른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으며 친구의 회기가 끝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등 친구활동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자신의 작품에도 만족을 하게 되었다. 또한 수업시간에 수시로 책상을 치며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이 감소되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표현력이 향상되었으며 크고

작은 활동에 열중하게 되었다.

B아동의 경우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사전보다 실시한 사후에 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원활하게 되었고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원활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역시 책상을 치며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 하던 행동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거나 자신의 발표 시에도 좀 더 자신의 감정표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C아동은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사전보다 실시한 사후에 자신의 실수에 대해 불안해 하지 않으며 언어적인 표현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며 머뭇거리는 행동이 감소하였으며, 위축된 마음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겨 친구와도 원활한 대화를 하는 등 스스로의 성장을 지속시켰다. 연구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행동의 감소와 함께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주체성을 띄게 되었다.

둘째, 그림검사(HTP, KFD)의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A아동의 경우에 인물표현에서 이상표현이 없어지고 안정되고 간결해 졌으며 무엇보다 외부세계와의 접촉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져 전체적인 구도가 안정되고 필압도 강해졌다. 또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 하거나 타인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 자리이탈하는 행동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B아동의 경우는 타인과의 접촉에서 열등감이 해소되고 자신의 그림에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사람을 더 현실화 있게 표현했으며 전체적인 구도가 안정적이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게 되면서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욕을 하거나 책상을 두드리는 등 문제 행동이 감소하였다. C아동의 경우 타인과의 접촉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에 대한 욕구와 자신의 그림에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사람을 더 현실화 있게 안정적으로 표현했으며 자신감이 생겼으며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셋째,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를 이용한 자아존중감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A, B, C아동 모두 사후 검사에서 점수가 향상되었다.

5-2. 제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 부모 아동들의 집단 미술치료를 G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타 아동의 3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효과성을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 된다.

둘째, 한 부모 아동들의 부모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행동의 근본적인 원인 소거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함께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본 연구자는 한 부모 아동들의 집단미술치료가 부모의 부재로 인한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단기간에 규명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장기적으로 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 아동들에게 부모의 부재로 인한 문제행동에 미치는지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부모의 부재로 인한 문제행동을 해소하는데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되었다. 한 부모 아동의 다양한 형태의 상담 및 치료교육에 활용되어 한 부모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해소하는데 미치는 효과를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학위논문]

1. 강경래(2005). <꼴라쥬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예술치료학과 석사학위논문.

2. 고진옥(200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ADHD 특성을 지닌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미영(1989). <결손가정 학생과 정상가정 학생간의 합리적 신념의 차이>.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의전공 석사학위논문.

4. 김선숙(2005). <미술치료가 불안·위축행동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영아(2006). <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 가정 청소년의 우울, 불안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옥희(2006). <여성주의 집단미술치료가 성폭력 생존자의 자존감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 김운화(2007).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변화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김지영(2002). <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우울, 불안, 자기 개념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형규(2004).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류승의(2000).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 특성의 비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박사라(2001). <방과후 프로그램이 한 부모 가정 아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 새터어린이 학교의 한 부모 가정 아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시례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박수연(2004). <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가족의 모-자 자아존중감 및 관

계지각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손희정(2005). <미술치료도구로서의 판화 :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아동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안민주(2005).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오가영(2006). <Theraplay 기법을 적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 유아의 문제 행동 수정 및 모-자녀관계 증진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석사학위논문.

16. 전은표(2005). <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 가정 아동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17. 최승제(1972). <자아존중감과 가정환경 및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18. 최옥희(2004). <집단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문제행동과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9. 허말단(2004). <결손 가정과 정상 가정 아동의 심리적 특성 비교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송인섭(1990). <한 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활동 프로그램>.

[학술지]

1. 고정자. <한 부모 가정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학술지5 (2004) pp. 277~302.

2. 김광웅, 조미영. <The effects of economic distress of home, the depression of the parents and the child's social support perception on the child's b>. 兒童硏 究. (1999). V ol.-No.13.

3. 김인숙, 이정화. <제 변인에 따른 한 부모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적응 행동>.《교육과학연구》. (2004) V ol.- No.9,

4. 박태영. <이혼한 한 부모 가정에 대한 가족치료-Family Therapy for the Single-parent Family after Divorce>.《社會科學論叢》. (2006) V ol.9 No.

5. 박충선,정영숙(1999). <양부모가족과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사회과학연구》. Vol. 6, No.3

[단행본]

1. 김동연 외(1994).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 : 동아문화사.
2. 송인섭(1998). 《인간의 자아존중감 탐구》. 서울 : 학지사.
3. 송명자(1999). 《발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인터넷]

1.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2. http://my.dreamwiz.com/godiam/stress/main.htm
3. http://stress.pe.kr/stress/stress1.htm
4. http://kr.blog.yahoo.com/report_blog/12806

<부 록>

<부록 1> 자아존중감척도 검사
<부록 2>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의 예

<부록 1>자아존중감 척도 설문지

다음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표를 해주세요. 이 문장들을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	보통 그렇.	약간 그런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2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3	부모님은 내 기분을 잘 맞춰 주신다.					
4	나는 학교에서 실망하는 일이 가끔 있다.					
5	나는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6	나에겐 친구가 많다.					
7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8	내가 원하는 만큼 학교생활이 원만치 않다.					
9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					
10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11	나는 집에서 상당히 행복하다.					
12	나는 학교에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다.					
13	내 문제는 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14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좋아한다.					
15	나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진다.					

	문 항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보통 그렇다.	약간 그런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	선생님은 나를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17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18	나는 남을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19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					
20	나는 학교 성적에 실망이 된다.					
2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22	나는 학교에서 하는 일이 서툴다.					
23	우리 가족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					
24	나는 학교에서 하는 일이 서툴다.					
25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을 귀담아 들어준다.					
26	나는 좋은 아들, 딸이다.					
27	내가 좀 더 나은 학생이면 좋겠다.					
28	친구들은 주로 내 생각에 따른다.					
29	부모님이 주로 내 생각에 따른다.					
30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내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31	나는 원하면 항상 친구를 사귈 수 있다.					
32	나는 우리 가족 중 중요한 사람이다.					

<부록 2>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사진

A아동 회기별 사진

<2회기> 나를 소개

<3회기> 난화

<4회기> 나의 이름

<5회기> 나의 장점

<6회기> 동물 가족화

<7회기> 나의 두 얼굴

<8회기> 숨은그림찾기

<9회기> 신문지 찢기

<10회기> 신문지로 만들기

<11회기> 찰흙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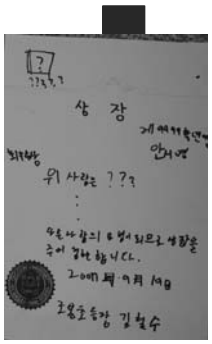
<12회기> 찰흙 놀이

<13회기> 찰흙으로 만들기

<14회기> 전신화

<15, 16회기> 휴지통 만들기

<17회기> 미래의 나의모습



<18회기> 받고싶은 상장만들기

<19회기> 소원나무 만들기

B아동 회기별 사진

<2회기> 나를 소개

<3회기> 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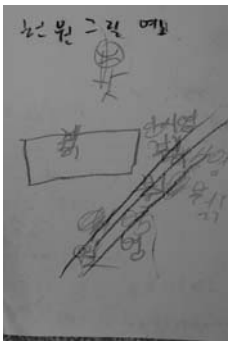
<4회기> 나의 이름

<5회기> 나의 장점

그림을 그린 후 그림을 찢어버림

<6회기> 동물가족화

<7회기> 나의 두얼굴



<8회기> 숨은그림찾기

<9회기> 신문지 찢기

<10회기> 신문지로 만들기

<11회기> 찰흙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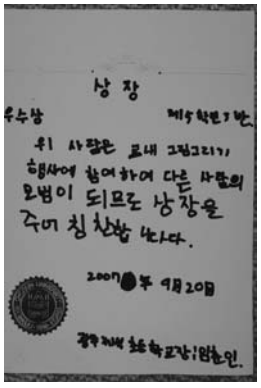
<12회기> 찰흙놀이

<13회기> 찰흙으로 만들기

<14회기> 전신화

<15, 16회기> 휴지통 만들기

<17회기> 미래의 나의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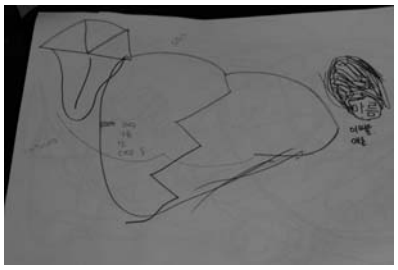


<18회기> 받고싶은 상장만들기

<19회기> 소원나무만들기

C아동 회기별 사진

<2회기> 나를 소개



<3회기> 난화

<4회기>나의 이름

<5회기>나의 장점

<6회기> 동물가족화

<7회기>나의 두얼굴

<8회기> 숨은그림찾기

<9회기> 신문지 찢기

<10회기> 신문지로 만들기

<11회기> 찰흙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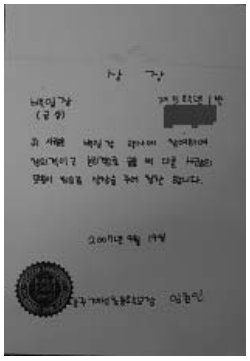
<12회기> 찰흙놀이

<13회기> 찰흙으로 만들기

<14회기> 전신화

<15, 16회기> 휴지통 만들기

<17회기> 미래의 나의모습



<18회기> 받고싶은 상장만들기

<19회기> 소원나무만들기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디자인학과	학 번	20068810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문 석 인 한문 : 文 碩 寅 영문 : moon, seok in				
주 소	광주시 동구 계림동 금호아파트 111동 1002호				
연락처	E-MAIL : mayain@nate.com				
논문제목	한글 : 집단미술치료가 부모의 부재로 인한 문제 행동을 해소하는데 미치는 효과				
	영어 : An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Release of Problematic Behaviors Due to Absence of Parent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2008년 2 월 일

저작자: 문 석 인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